

캄보디아의 교육환경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현정¹

(국제학 석사/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I. 들어가기

캄보디아는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고대 유적지의 관광자원 활용,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정책대응 등으로 최근 10년 간의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이끌어 오고 있지만, 국가가 목표로 하는 발전수준의 달성을 위해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확충, 부패한 지배구조와 열악한 인프라 등의 개발 저해요소들과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실업, 저임금, 빈곤 등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9-2013을 바탕으로 사각(四角)전략을 세워 다방면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 경제 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이라는 ‘교육발전정책 2003-2015’ 아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교육의 제공을 위한 노력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에 의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으로 숙련인력 양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상위교육의 비전문성과 TVET이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에 실패하며 고등교육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교육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 주체의 역할을 담당할 높은 청장년층의 인구구조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실업률을 해소하지 못하여 인적자원의 낭비를 방치하고 나아가 청장년층의 인력을 통한 경제사회발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제사회의 교육개발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에 집중된 원조로 인하여 도시와 지방 간의 불균형을 조장하게 되었고 부적합한 교육방식 채택으로 인하여 높은 진학 이탈률 등 오히려 불안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글은 캄보디아의 교육제도 및 교육개발정책을 통한 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실태를 살펴보고 캄보디아의 교육환경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구조에 따른 캄보디아 특유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알아보고 프놈펜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분포와 국제개발원조에 의해 초래된 지역별 불균형한 발전과 교육 수준별 불균등한 원조가 캄보디아의 교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캄보디아의 교육현황

1. 캄보디아의 교육제도와 교육발전정책

캄보디아의 교육제도는 6-3-3식의 학제를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초등교육 6년을 마치고 주(州) 단위에서 시행하는 졸업시험을 치른 후 중학교에 진학한다. 우리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하급 중등과정(Lower Secondary) 3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상급 중등과정(Upper Secondary) 3년의 교육을 마치고 각각 교육부에서 출제하는 졸업시험을 치른 후 합격을 하면 졸업장을 받게 되고 불합격하면 수료증만 받게 된다. 졸업시험에 통과하면 시험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의 정도가 정해지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상

¹ julialee@pusan.ac.kr

급 중등과정에 진학할 수도 있고 TVET을 위한 직업훈련원에 진학할 수도 있다.

<표 1> 캄보디아의 교육제도

유치원(살라멧다이)	1년 과정	3-5세/ 3단계
초등학교 (바도머석사)	6년 과정	수료증 부여. 주(州)마다 출제
중등학교 (아닛쥐찌어라이)	3년 과정	졸업시험(교육부 출제)에 통과하면 수료증 부여받고 고등학교 진학
고등학교 (보찌어라이)	3년 과정	과정 이수 후 큰 시험(교육부 출제). 우수한 학생은 대학교 선택, 장학금 수혜, 졸업장 받음. (시험에 탈락하는 자는 졸업장 받지 못함)
대학교 (사꼴뷔 찌어라이)	기술 직업 교육 훈련	4년 (학사) 2년 (석사) 학사과정에서 인문학부 학생은 크메르문학을 반드시 이수. 자연학부 학생은 수학을 이수해야 함. 공립대학교는 Royal University of Phnompenh 하나임. (단과대학을 하나의 독립된 대학으로 간주 -> 6개 대학)

출처: OMF/이석희 외. 2007.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교육실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32쪽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개발계획 NSDP 2009-2013은 교육의 질 향상 및 TVET을 사각전략의 두 축인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과 ‘역량강화 및 인적자원개발’ 하에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교육정책은 국가발전정책의 하위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래의 교육정책은 프랑스 식민 시대의 교육 모델을 원용하였으나, 2000년대를 넘어서 각국 NGO들의 협조와 조언으로 점차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영향을 받으며 그 발전정책 또한 새롭게 수립되어 오고 있다.² 이는 NSDP의 사각전략에 따라 보다 실질적이고 양성평등적이며 지역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로 대변된다.

캄보디아의 고등교육발전정책은 2006-2010년에 수립한 것을 기초로 2010-2013년까지의 고등교육발전정책을 수립하여 ①교육의 공정한 접근성 강화 ②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③고등교육 기관의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³ 캄보디아 고등교육기관의 과정의 다양화와 커리큘럼 개발 및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 교육개발을 위한 유·무상의 다각적 원조를 받고 수원국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국내 및 해외 노동시장의 장기적인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경제성장 동력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숙련노동력 공급을 위한 제도와 사회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VET에 대한 정책으로는 2004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직업훈련 기능을 통합하여 노동직업훈련부(MoLVT: Ministry of Labor Vocational Training)를 신설해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및 향상에 힘쓰고 있다. 훈련과정 관리 및 관련 부서와의 조정업무, 노동시장 요구에

² 윤종혁. 2007. 『캄보디아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37쪽

³ 박인원 외. 2010. 『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3쪽

다른 훈련 및 교육 실시, 평가와 자격의 연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⁴ 구체적으로는 국가자격 제도 및 기술표준, 검정제도 개발, 기술교육기관 인정, 훈련생 연수, 자격증, 빈곤감소기금 등을 통해 기술 및 TVET 홍보 및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내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제도정비 및 인식향상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므로 캄보디아 정부 관련기관 및 주요 원조기관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중장기 정책 마련 및 제도 구축이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1) 고등교육의 실태

캄보디아의 교육은 1975부터 1979년까지 폴포트 정권에 의해 지식인층이 대량 학살당하고 거의 모든 교육체제가 파괴되어 그 복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의 고등교육의 교과과정은 상당 부분 프랑스의 것을 원용하고 있지만, 수업진행은 주로 구소련 시절의 방식을 모델로 삼고 있다. 교수의 강의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토론식의 강의진행이나 수업 중 질문이 오가는 일은 극히 드물다.⁵

캄보디아는 2006-2010년 고등교육발전정책을 수립하여 고등교육의 확대와 전문화에 힘썼으나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2010-2013년까지의 수정된 고등교육 발전정책을 수립하여 교육의 공평한 접근성,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교육기관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10년 조사된 바로는 캄보디아에는 전체 88개 대학이 있으며 34개의 국립대학, 54개의 사립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교육의 낮은 질적 수준과 졸업 후의 낮은 취업률 등으로 인해 교육, 농업, 기술, 공업, 과학, 수학 등의 학문을 수학하기 위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경향을 보여 대학진학의 비율이 낮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취업이 비교적 쉽고 고소득이 보장되는 경영관련 학과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정책에 따른 고등교육의 목표는 캄보디아의 경제, 사회, 시장의 필요에 맞는 지적 개발, 인적자원의 공급을 위해 고등교육의 접근을 확대시키고, 장학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공평한 교육 접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⁶ 하지만 대학교 교원의 전문성이 낮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최대원조 대상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교육개발 원조가 초등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전문적인 고등교육 체제의 구축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표 2> 전공별 학사학위 수여자 (추정치⁷)

Bachelor Degree by Discipline	Three-Year Average (%) (2007-2009)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Mathematic, Chemistry, Physics, Biology	2.1%	482	511	578	601	1,145	4,773
Unspecified Disciplines ²¹	3.3%	749	795	899	935	1,781	7,425
Computer Science	7.9%	1,811	1,923	2,174	2,262	4,307	17,956

⁴ 최영렬 · 정지선 · 김수원 · 장지순. 2007. “아태지역 직업교육훈련 실태조사 및 직업교육 Workshop(II): 캄보디아.”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7쪽

⁵ 윤종혁. 2007. 『캄보디아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33쪽

⁶ 박인원 외. 2010. 『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 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4쪽

⁷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

Sociology, Humanity and Arts	6.1%	1,391	1,477	1,669	1,737	3,307	13,789
Tourism	2.9%	665	706	798	830	1,581	6,592
Foreign Languages	14.5%	3,325	3,530	3,989	4,152	7,905	32,958
Law	5.2%	1,192	1,266	1,431	1,489	2,835	11,819
Health Science	5.5%	1,253	1,331	1,504	1,565	2,980	12,426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3.8%	871	925	1,046	1,088	2,072	8,637
Engineering and Mechanic	3.2%	726	771	871	907	1,726	7,198
Sub-Total (1)	54.4%	12,466	13,237	14,958	15,567	29,639	123,574
Business Management							
- Business	7.6%	1,743	1,850	2,091	2,176	4,143	17,275
- Marketing	1.1%	252	268	303	315	600	2,500
- Management	13.1%	2,996	3,181	3,595	3,742	7,123	29,700
- Banking and Finance	1.7%	397	422	477	496	945	3,940
- Economics	6.1%	1,391	1,477	1,669	1,737	3,307	13,789
- Accounting	10.4%	2,377	2,524	2,852	2,968	5,651	23,563
- Finance	5.7%	1,307	1,388	1,568	1,632	3,107	12,956
Sub-Total (2)	45.6%	10,463	11,111	12,555	13,067	24,877	103,723
Grand Total (1)+(2)	100%	22,929	24,348	27,514	28,634	54,516	227,297

출처: Higher Education and Skills for the Labor Market in Cambodia, HRINC, p. 25.

2) 직업교육훈련의 실태

캄보디아인의 대부분은 아직도 인문계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기술계보다 월등히 높다. 전통적인 인문 숭상주의 풍토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기술계를 졸업해야 취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⁸ 오늘날 캄보디아 정부는 직업기술교육이 국가적 측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숙련노동자가 부족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청소년의 노동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소외 지역의 사람들,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들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숙련기술자의 부족으로 인력 양성이 열악한 상황이고 인력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부응하지 못하는 직업기술교육과 인력 양성 체계로 인하여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두고, 2004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직업훈련기능을 통합하여 노동직업훈련부(MoLVT)를 신설해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및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⁸ 윤종혁. 2007. 『캄보디아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3쪽

캄보디아는 38개의 직업훈련기관이 있고, 2004년 이후로 지역사회의 실정과 요구에 맞춘 직업기술 훈련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⁹ MoLVT는 전문적인 직업훈련교육을 위해 TVET시스템을 구축하여 훈련과정 관리 및 관련 부서와의 조정업무, 노동시장 요구에 따른 훈련 및 교육 실시, 평가와 자격의 연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 후 직업교육시스템과 작업현장과의 연계에 실패하며 열악한 고용여건 속에 청년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훈련에 따른 고용으로의 전환에 실패함으로 인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선호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 개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은 물론 고용에 대한 산업 분야의 발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캄보디아의 노동시장은 대부분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0년 이후로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저숙련의 청소년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 이들을 중·고숙련 인력으로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사회 안정과 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직업교육의 과제가 될 것이다.

III. 캄보디아의 교육환경의 문제점

1) 사회구조에 따른 교육환경

1863년부터 1953년까지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배 하에 있으면서 프랑스의 사회·경제 착취에 의한 전통적 크메르(Khmer) 교육과정 속에서 전통교육 체계의 현대화와 프랑스 교육의 통합을 겪으며 프랑스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을 해오고 있었다. 1953년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며 이듬해에 시하누크 정부가 캄보디아의 합법적인 정권으로 승인을 받으며 시하누크 왕자는 초등의무교육의 수립과 교육 확대로서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크메르공화국에 의한 쿠데타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전개되었고 1970년대까지의 내전으로 인해 캄보디아는 심각한 사회·문화적 고통, 정치적 불안, 사회·경제적 대혼란을 겪으며 전통적인 사회문화 구조와 교육의 기초가 황폐화되었다.

1980년대에 와서 교육시스템과 사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과 교육기회의 확대를 다시 가져오게 하였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내전 및 정치적 불안정성의 후유증으로 국가경쟁력 창출의 핵심인 고급인력양성 및 수급이 미흡하였다. 특히 고등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는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고 국제경쟁력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에 놓여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전략을 취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 국가차원의 경제개발 단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캄보디아인들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교육은 정직, 더 나은 삶을 위한 나눔, 지식, 사회생활의 매너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적 수준”으로서의 기초교육은 국가의 사회·문화와 정책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인들의 대부분은 농민이고, 여자는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 남자는 밖에서 사교적이고, 신사적이며 용기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삶의 이상으로 간주한다.¹⁰ 캄보디아의 전통 교육체제에 따라 집안을 지키는 여성은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았다.

⁹ 박인원 외. 2010. 『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2쪽

¹⁰ 정갑순. 2005. “선교전략을 위한 캄보디아 교육 고찰.” 캄보디아 전문인 선교회. 서울: 신학지남사. 128쪽

오늘날 캄보디아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중에서 직업기능 경력과 생산성을 발휘해야 할 역할을 가진 중·장년층의 문맹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맹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학력을 갖추고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인문해교육 프로젝트를 국가 수준에서 계획적으로 추진·조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¹¹

캄보디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촌지역 청·장년층의 지역 이탈 및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로의 고등교육기관 집중으로 인해 도시에는 고등교육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도시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했다. 그에 비해 시골의 청·장년층은 고등교육률의 침체와 지역 경쟁력의 저하를 겪게 되었다.

<표 3> 캄보디아의 연령별 문해율 (단위: %)

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15-24세	남	91.3	89.6	88.3	89.4	91.6
	여	84.4	87.9	85.8	88.2	91.3
	전체	87.8	88.8	87.1	88.8	91.5
25-34세	남	80.7	85.3	81.3	85.7	90.2
	여	69.9	71.7	69	74.9	79.2
	전체	75.2	78.4	74.9	80.2	84.6
65세+	남	72.6	74	70.4	72.5	75.5
	여	17.1	19.6	18.6	22.4	25.9
	전체	38.8	43	40.1	42.9	45.2

출처: MoP, NIS_Cambodia Socio-economic Surveys (CSES)

2) 국제 교육개발원조의 지역별 불균형

캄보디아는 UN가입 국가 중에서도 최빈곤 저개발국가로 1990대 후반 이후, 전세계 많은 NGO 단체들이 협의체를 조직하여, 기아 해소, 교육, 의료, 노동환경 등을 위한 미션을 갖고 캄보디아 곳곳에 들어가, 단순한 기본 욕구 충족이 아닌 인간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고 성별, 재산,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모양의 국제개발협력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고등교육의 경우, 경영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고등교육 쓸림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학문의 교육과 심각한 도시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업훈련보다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인문 및 사회 분야 학문교육 선호 경향이 잔존하므로 이와 관련된 인식제고 및 효율적인 인력양성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지방은 농업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농업의 기술향상 및 전문화를 꾀함과 동시에 고등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캄보디아의 경제 주축인 농업, 봉제, 건설 부문은 고학력 젊은이의 고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구조가 문제시되고 있다.

¹¹ 윤종혁. 2007. 『캄보디아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3쪽

<표 4> 캄보디아의 고용 현황 (단위: %)

항 목		2007	2008	2009	2010	2011
15세 이상 인구대비 고용률	합계	83	81.5	68.5	70.1	69.3
	여성	77.7	75.3	61.4	64.3	62.2
	남성	89	88.5	76.9	76.4	76.8
농업 분야 고용률	합계	57.7	55.6	57.6	54.2	55.8
	여성	59.4	55.5	57.8	55.4	56.6
	남성	56.1	55.7	57.4	52.9	55
실업률	전체 노동률의 %	0.7	0.4	0.3	0.8	0.6
	여성 노동률의 %	0.8	0.4	0.2	0.8	0.5
	남성 노동률의 %	0.7	0.3	0.3	0.7	0.7

출처: World Bank Data (Online, 접속시간: 2013.10.24. KST. 20); MoP, NIS_Cambodia Socio-economic Surveys (CSES) 2007-2012.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교육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엄선된 교육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가적 노하우와 경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의한 교육의 국제협력조치는 양자간 혹은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간 협력을 수용하면서도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피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10년 동안 정부와 NGO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교 과정을 완전히 마치는 학생이 90%인 반면, 하급 중등교육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20-30% 정도밖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한 편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도 고교 졸업생 중 약 20%로 추정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따라서 소외·빈곤지역에 지원할 때에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의료,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내에서 가장 빈곤하며 보건·교육에 대한 기초지표가 열악한 국경 인근지대 및 동북부 지역 등을 우선대상으로 지정학적 상황뿐 아니라 환경 및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균등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V. 한국의 대 캄보디아 교육개발원조 현황

한국전쟁 이후 해외원조에 의지하던 한국은 20여 년 전부터 해외의 가난한 나라를 돕는 원조국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오던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이, 한국이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이 되면서 DAC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무상원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지원대상국 중 1991년 초기에는 100위권에 머물렀고, 2000년에는 13위, 2007년에는 6위권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3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최대 지원대상국이 되었다. 이

¹² 캄보디아 교육청, <http://www.moeys.gov.kh/>

는 대아세안(ASEAN) 원조액의 약 23%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국의 대아세안 교육분야 지원의 특징은 한국의 교육인력 양성 정책 및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여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과 개도국의 소득수준, 산업구조, 성장전략 등 개도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직업훈련, 제도구축 분야, 기능양성 수준, 훈련 직종 등에 대한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권 개도국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는 교육개발협력 활동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캄보디아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교육발전정책을 컨텐츠화하고 개발하여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행을 위한 사업설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개발의 초석을 마련해 주도록 힘쓰고 있다. 아래의 <표 5>에서 보이듯이, 대부분의 OECD 개발원조회원국이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집중하는 추세임에 반해, 한국의 경우 중등 또는 직업훈련에 치중한 원조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술 분야에서 직업훈련에의 편중은 캄보디아 경제개발을 위한 숙련인력 육성이라는 점에서 수원국 개발 수요에도 부합하나,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고급인력 양성, 제도 정책적 분야에의 교육 등 특수한 캄보디아의 수요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특수한 상황과 사회·문화를 고려한 교육 분야에 특화된 한국의 대외개발원조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5> 한국의 대캄보디아 교육ODA의 분야별 집행액 및 비중 (단위: 100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ODA 총액		13.83	35.28	34.66	17.05	37.33	62.23
교육 ODA 총액		2.165	1.567	1.348	2.017	4.100	6.410
ODA 총액 대비 교육 ODA 비율(%)		15.65%	4.44%	3.89%	11.83%	10.98%	10.30%
교육 ODA	초등교육	-	0.115	0.301	0.387	0.600	0.779
	중등교육	-	-	0.012	0.186	0.402	0.036
	직업교육	-	-	0.722	0.108	0.252	0.122
	고등교육	-	-	0.175	0.842	1.426	1.850
	기타	-	-	0.138	0.494	1.420	3.623

출처: OECD DAC CRS, 2013;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2013에서 저자 재구성.

2012년에 재캄보디아 한국개발NGO협의회에 의해 발간된 <2012 재캄보디아 한국개발NGO 편람>에 따르면 22개나 되는 재캄보디아 한국 NGO단체들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선교활동을 하는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협의체들은 기아, 의료, 교육, 노동환경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다. 이 22개의 한국 NGO단체 중에서 16개의 단체가 특별히 교육과 관련한 사항들을 주 사업으로 다루며 학교 설립, 방과후 교육 제공, 기술교육, 어린이 기금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2개의 NGO단체 중 반 이상이 프놈펜과 시엠립 같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여전히 문명의 혜택이 자유롭게 닿지 않는 시골에는 어떠한 지원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원조가 유치원 및 초등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지역편향적인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 지역과 사회구조적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대캄보디아 교육원조가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V. 맺는 글

지난 40여 년간 캄보디아는 혹독한 정치적 변화과정 속에 심각한 사회·문화적 고통, 정치적 불안, 사회·경제적 혼란을 겪으며 전통적인 사회·문화 구조와 교육의 기초가 황폐화되었다. 1980년대에 와서 교육시스템과 사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과 교육기회의 확대를 이루게 하였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내전 및 정치적 불안정의 후유증으로 국가경쟁력 창출에 핵심인 고급인력양성 및 수급이 미흡하였다. 특히 고등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는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고 국제경쟁력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에 놓여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전략을 취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 국가차원의 경제개발단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교육환경은 국제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후속교육에 대한 지원과 교육기관의 구성이 미흡하므로 청년층에 대한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기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타겟화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 산업 고용확대의 전략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캄보디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청장년층의 지역 이탈 및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심각하게 나타나, 도시에는 고등교육의 높은 비율을 보이나 농촌지역은 고등교육률의 침체와 지역 경쟁력의 저하를 겪게 되었다. 또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경영관련 전공에 쏠림 현상을 나타내므로 과학·기술·예술과 같은 다양한 학문의 교육과 도시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반면, 지방은 농업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농업의 기술향상 및 전문화를 꾀함과 동시에 고등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교육환경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교육개발원조를 시행하고 있으나 접근성에 따른 지정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환경 및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지역 균등의 원조와 각 수준별 교육의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로만 집중되는 지역적 불균형 발전과 초·중등 교육에 치중된 불균등한 단계별 교육성장을 초래한다. 또한, 공여국의 입장에서 베풀기 쉬운 원조가 아닌 수원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소외되고 빈곤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건·교육·의료 등의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캄보디아의 특수한 상황과 사회·문화를 고려한 교육 분야에 특화된 대외개발원조와 정부의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